



표지사진 : 게르를 배경으로 찍은 몽골 아이들입니다.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남매의 모습에 작은 미소가 스칩니다.

JTS 통권 26호 11 · 12월

펴낸날 : 2000. 11. 7

펴낸이 : 법 률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최양희, 조윤숙
이상임, 김경내(부산JTS)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인도

4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5 특집

여기는 바깥쪽

북한

6 지금 북한에서는

2000년 북한 농업지원의 의의와 예상효과

7 몽골에서 온 소식

말이 죽는 짝은 감동

청소년

9 아름다운 청소년

나는야 통일세대!

그리고

11 실직자 심성수련

심성수련을 마치며

12 후원의 소리

*가을편지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14 활동보고 및 안내

16 회원광고란

17 신규회원 명단

18 결연단체현황

23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이 덕 아 (인도사업 책임자)

사르보다야 운동 견학팀 귀환

정정임, 마노즈, 아니타 3명이 사르보다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남인도 첸나이 근교 타밀나두에서 2개월간 10여 마을과 6개 조직을 견학하고 마을개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만큼 큰 빌딩도, 학교도, 편의시설도 없어서 실망했는데 마을을 방문할 때 동계스와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물탱크와 식수공급, 전기, 널찍한 도로를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곳은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부녀회가 조직되어 운영이 되고 마을 사람들과 NGO의 탄탄한 유대관계로 맺어진 활동이 주 정부의 정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군요. 거기에서 만난 순다르씨는 8년간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운동에 참여한 경력으로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동계스와리의 마을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펌프질로 물 퍼 올리고, 지붕 없는 화장실에서 달과 별 보며 불일보고, 송아지, 강아지, 고양이와 친구가 되어서 잠을 잤지만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마을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세요.

푸르 라는 비하르 북쪽 지역으로 홍수피해 긴급복구 작업을 나갔습니다. 바갈푸르는 웨스트 벵갈주와 접경지역으로 해마다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번 파견단은 마을 전체 휴집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겨울을 대비해 추위를 막을 임시용막을 200여 채 지어줄 예정입니다.

새 옷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보내온 옷들을 꺼내어 통풍시키고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과 유치원생, 마을주민, 홍수피해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골고루 나눠줄 예정입니다. 새 옷을 받는 아이들의 총총한 눈망울이 그려집니다.



홍수피해지역 복구캠프 실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동안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을 비롯 한국자원봉사자, 마을청년, 교사 등 총 28명이 바갈





여기는 바깥쪽..

이 화 승 (JTS자원개발부장)

지난주에는 해마다 홍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하르의 동북부 지역인 바갈푸르에 다녀왔다. 파트나에서 모까마까지 자동차로 3시간을 갔는데 모까마에서부터는 도로 연결이 부실하다해서 기차로 다시 7시간을 달려 바갈푸르에 도착했다. 모까마에서 저녁 7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바갈푸르에 도착하니 새벽 2시. 알아보니 호텔도 만원이고 역사에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방도 딱 찻다한다. 예구구...

우리는 아무 것도 준비해가지 않아서 여행자들 쉬는 방 앞 베란다에서 한 사람 당 10루피(250원)를 주고 맨바닥에서 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보며 달콤한 잠을 잤다.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아침 일찍 태양과 함께 일어나 지프를 대절하여 피해가 가장 심한 마을을 방문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논들이 모두 물에 잠겨서 벼들이 까맣게 죽어있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파랑기는 하지만 벼 목이 올라오다가 물 피해로 더 이상 자리지 않는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파트나 주민에게 물어보니 수확량이 평년의 50%정도라 하고 바갈푸르에서는 0%라고 했다.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바갈푸르에서도 상당히 지대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1,500여 가구가 전부 물에 잠겼고, 흠으로 지은 집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임시로 흠을 물에 개어서 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지나가자 까맣고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조사차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게 없었다. 그냥 지나치는 마음이 무거웠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청년이 물에 닿아서 상한 까만 쌀을 보여주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이제 곧 겨울이 닥치는데 1년 농사를 망쳤으니 이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도 막막하다 싶었다. 이런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해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일이었다 싶기는 하지만 인도 정부에서는 한 가구당 밀가루 20kg과 200루피를 지원해 주고는 소식이 없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선 흠으로 벽을 쌓아도 벗짚으로 지붕을 하려면 2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데 이런 때는 벗짚도 비싸고 하니 플루틴이라는 비닐 천을 지원해 주면 우선 지붕이라도 엮을 수 있겠다 한다. 한 가구에 300루피, 약 8천원. 피해지역 전체를 생각하면 수백만 가구에 이르지만 우리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인연 닿는 바갈푸르에서 피해가 심한 1,500여 가구만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가? 그 지역은 3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의 바로 위 지역이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강 양쪽을 다 독으로 막아야 하는데 강의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 그나마 약한 전력을 위하여 댐을 만들어서 우기에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물의 유입량이 커지는바람에 그 댐으로 더 많은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어 왔다고 했다. 제이티에스에서는 우선 고학년 학생들과 한국자원봉사자들 20여명이 집 지어주기 워크캠프를 하기로 하였고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백방으로 뛰고 있다.





2000년 북한 농업지원의 의의와 예상효과

제이티에스가 북한의 농업부문에 대한 물질, 기술적 지원을 한 지 3년이 되간다. 지난 3년간의 지원경과를 돌이켜 보면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은 그 역사적 의의와 현실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와 북한 사회내의 파급성은 지원규모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뚜렷하다.

금년도 농업지원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보기 드문 풍작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농업 기술면에서 온성군의 벼 초회식 재배법과 라진·선봉지역의 옥수수 비닐박막 피복재배법을 완전히 승인,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농장원들의 노동 적극성도 높아지면서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 농업지원 면적은 라진, 선봉과 온성 지역의 24개 농장에 있는 수전(논) 1,300정보와 한전(밭) 550정보 합계 1,850정보이다. 여기에 지원된 물자는 비료 800톤과 종자, 비닐박막, 농약 등이며 여기에 농업기술면에서 벼 초회식 재배와 옥수수 피복재배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였다.

금년도 예상 수확고는 벼가 정보 당 평균 4.8톤이고 옥수수는 정보 당 6.7톤이 예상된다. 이중 가장 농사가 잘 된 곳은 세선농장의 벼 6.5톤과 읍농장의 옥수수 7.7톤이다. 이를 이 지역의 금년도 예상 수확고 벼 2.8톤과 옥수수 3톤과 비교해 보면 벼는 정보 당 2톤, 옥수수는 정보 당 3.5톤의 증산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한 1,850정보에서 벼 2,600톤과 옥수수 1,925톤을 증산한 셈이다.

이외에 농업기술면에서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그 효과는 물질적인 지원과 똑같이 중요하다. 금년도 온성군 세선농장 논 재배정황은 함경북도의 각 군 농장에서 참관, 학습하였으며 예상컨대 전 함경북도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반적인 물자부족으로 초회식 재배는 힘들지만 회식재배는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북한 농법은 밀식재배로부터 회식, 초회식 재배로 발전할 것이다. 그 기술적 의의는 매우 크며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다.



앞이 주는 작은 감동

최 정 연 (JTS몽고파견 실무자)

9월 8일 '사랑의 옷'을 받아보면서..



오늘 울란에서
컨테이너 물품
검사가 있었다.
검사관이 콘테
이너 속의 박스
두 개 열어 옷
몇 가지 꺼내 검
사했는데 다들
놀라서 어디서
온 물건이냐고
물었다. 어찌나
옷이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담

겨 있던지.. 박스 테이프도 반듯반듯하고 깔끔하게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딱 매어져 있고... 다부지고 정성스레 담은 흔적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했다. 검사관도 깨끗한 옷과 아무진 박스처리에 대해 무척 만족해했다. 나도 박스를 열기 전까지 내심 걱정이 됐었는데 정성스럽게 개어진 옷들을 보니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정토 보살님들이다 싶었고, 한국인, 정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다. 정성이 담긴 옷 속에서 정토사람을 만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이 옷으로 가난에 무기력한 어른들과 학교 못간 아이들이 그분들의 정성을 만나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밝고 맑은 정신이 전해지기를... 조금 있으면 추석이다. 날은 점점 차가워지고 하늘은 높아만 간다. 정토식구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9월 29일 초이발산 1, 2차 지원보고서

초이발산은 아이들 보호보다 마을개발 사업이 필요한 수준인 것 같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할만큼 교육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사



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사회주의 습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방치된 아이들 뒤에는 할 일없이 빈둥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몽골 수도나 도시의 세상 흐름에 눈뜬 몽골사람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고 장사를 하고 외국어를 배워 무엇 이든 하려는 태세인데 이런 시골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나눠 받는데 익숙하고 어렵다기 보다는 그냥 버려진 채 사는 느낌이 들었다. 넓은 대륙에 벼농사가 안 되는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밭농사는 잘되는 지역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단체가 벼농사를 실험재배 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으로 땅을 파고 농사 짓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목축을 하는 문화라 농사문화와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몽골



사람들은 땅파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겨우내 땅이 굳어 파기 어렵고 풀들이 뻑뻑하게 나 있으니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중국사람들이 몇 채 사는데 지원하면서 돌아보니 중국인 집 마당은 야채 밭이 있었다. 대부분 중국사람은 그 너른 땅에 밭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역이다. 맨 처음 몽골에 들어왔을 때는 통역비가 30달러였는데 지금은 200달러씩은 줘야한다. 교수 월급이 9만투그릭, 90달러 수준인데 통역이 이 정도니 통역비가 보통 비싼게 아니다. 또 통역을 계속 쓰면서 보니 밀가루나 옷 지원처럼 물건 주는 것은 그런대로 되지만 마을 사람들이나 아이들, 공무원들과 직접 얘기가 안되니 사람들은 통역을 상대하기 일우고 또 통역은 일일이 말하기 귀찮으므로 통역은 통역대로 잘라 말하거나 내 뜻과는 다르게 얘기하거나 못 알아들어서 아예 얘기 안 하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내가 그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는' 일이라 싶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일 할려면 이구동성으로 말부터 배우라는 말이 실감났다.



나는야 통일시대!

10월 14일,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구중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있었다. 토요일 오전 학습별 테마 학습시간에 제이티에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되었다. 중학교 2학년 3개 반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관련 OX 퀴즈 맞추기,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보기, 북한지도 끼워



맞추기, 북한을 직접 방문하신 선생님의 체험담 듣기, 탈북자 인터뷰쪽지 돌려 읽기, 통일에 대해 명상하기 등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수업시간이 채워졌다. 아이들은 따분하고 지루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몸을 일으키고 양쪽 진영을 나눠 OX 퀴즈를 하면서부터는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진행자의 퀴즈문제에 귀를 쫑긋하여 듣기도 하고, 맞추지 못한 팀은 안타까워 소리를 지르고.. OX퀴즈를 통해서 북한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것도, 북한의 연인들이 '자기'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모두가 화면에 열중하는 모습이였다. 역시 영상세대인가? 비디오 화면도 인상적이었다. 포화 속에 아이가 우는 장면, 관문점 노동당사에서 태극기를 걸고 춤추는 장면.. 이런 화면에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라는 노래가사.. 이렇게 좋은 교재일 줄이야... 다음은 북한 각 지역의 특징을 듣고 그에 해당하는 도나 직할시의 지도를 갖다 붙여서 북한지도도를 완성하는 것이였다. 자강도, 양강도, 처음 듣는 도 이름이 생소했고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생한 북한 방문 이야기.. 북한에 도착해서 떨리는 기분으로 배에 올라온 북한사람과 인사했던 첫 기억을 전해 듣는 기분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다. 또 식량난으로 힘든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쪽지. 너무 불쌍하고 끔찍한 상황이 마음 아팠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또 북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되나? 앞으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심성수련을 마치며...

별칭: 박정희

생각할주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 마음의 문을 열고 부끄럼 없이 이 사회에 있느냐 마나 하는 인간이 아닌 참 인간이 되고 싶다. 먼저 나 생각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이기주의만 갖고 쓸때없는 고집과 허무한 욕심과 탐욕을 탐한 내 자신을 무척이나마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인간이 될 것을 이 글을 쓰면서 다짐한다. 사박 오일 동안 법사님에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까막특히 모르고 지내온 세월이 무척이나 아쉽고 허송세월을 낭비한 나 자신을 지탄하면서 지난을 일에 용서받고 싶다. 이곳 수련을 하는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코스모스님, 연님, 우리들의 식사를 담당하신 여러 신도님께 감사 드리면 몸 건강히 잘 계시기를 진심으로 빌립다. 여기계신 신도님들 께서도 하시는 일에 모든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잘 되시기를 빌립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내가 두서없이 받침도 틀리지만 용서하시길...

2000년 10월 8일 자유의 집 최진수

✧ 실직자 심성수련 참가자 모집 ✧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 ◆ 일정: 11월 8일(수)~12일(일)
12월 6일(수)~10일(일)
- ◆ 인원: 각 프로그램 당 5명 (선착순)
- ◆ 대상: 실직자
- 〈나눔의 장〉
- ◆ 일정: 11월 22일(수)~26일(일)
- ◆ 인원: 20명 (선착순)
- ◆ 대상: 노숙자, 쉼터 거주자

- 비 용 : 수련비(20만원) 전액 지원 (쉼터 거주자는 왕복 차비 지원)
- 장 소 : 정도수련원 (경북 문경)
- 문 의 : 한국JTS 이지현 (Tel: 02-587-8995, Email: jts@jts.or.kr)



가을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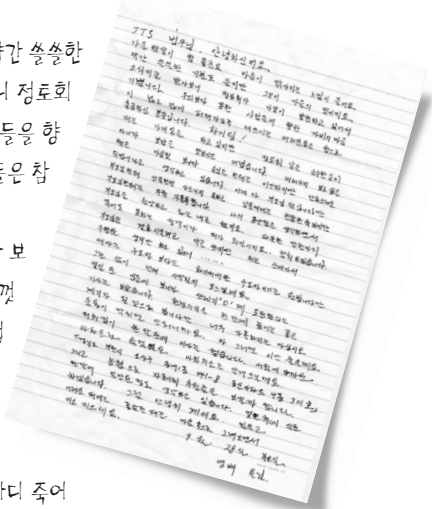
정영배 (35세, 자영업)

JTS 법우님 안녕하십니까.

가을 햇살이 참 좋군요.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쓸쓸한 기분도 들지만 그것이 가을의 멋이지요. 소식지를 받아보니 정로회 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넓고 넓게 퍼져 가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파이팅!

저는 가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로회같은 순수한 일이 아니라 보람을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싶은 책은 마음껏 보니까 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만족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모님 덕입니다만 부모님한테 선물한번 사드리지 못하고 남들에게는 친절할 척 하지만 부모님한테는 무척 무뎡습니다. 나의 못난 점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곤 했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죽어도 못하는 성격이라 제가 죄인이지요. 참회하겠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산에 가서 수행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메마른 구도자보다는 화기애애한 구도자이기를 원합니다만 그런 삶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 '이'에 도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환경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너무 가혹하지는 마십시오. 숨통이 막히면 안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만 줄일게요. 저희 집이 한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서점에 가까운 아파트로 옮겼어요. 바뀐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농협으로 자동이체 후원금을 보낼 겁니다. 한 달에 일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좋았던 때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미소지으세요.



9월 28일 목요일 영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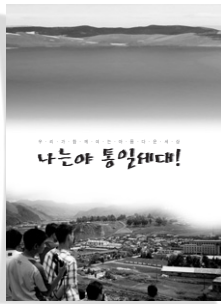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동국대 경제학과 4학년 주태영

이번 여름방학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이라면 중고생이나 대학 1, 2학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4학년인 나로서는 처음에는 무척 쑥스러울 일이었다. 차마 혼자하기 뭐해서 동기 하나를 붙잡아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JTS였다. 우리가 맡은 일은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용이나 형식, 특히 청소년들이 알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어떠한 선례도 없었기에 무척이나 난감했다.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교재를 어떤 방향으로 편집할 것이냐의 문제.. 나와 다른 사람들간의 견해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했다. 심지어는 내 동기와의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여기저기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하여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갔다. 하지만 나는 그만 도중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 절친한 친구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시간이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일이다.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방학이 다 지나갔고 석 달 가까이 걸친 작업을 통해 교재 또한 마무리가 잘된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시간과 돈을 쪼개가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은 생각이 스쳤다. 이 경험들을 살려 나도 조금이나마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동국대 경제학과 4학년 이주원



통일교재를 만들면서 나름의 욕심과 계몽으로 선생님의 맘 고생을 시켜드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함께 했던 친구들.. 그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 책들 중, 고생 친구들이 보면서 한번 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역시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김예경 선생님, 상임씨, 같이한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셔요..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인도 홍수피해지역 봉사활동

상습 홍수피해 지역인 비하르 동북부의 바갈푸르에 긴급 봉사활동을 나갔다. JTS 고학년 학생들과 교사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 28여명이 10월 26일부터 열흘 간 집을 지어주기 위한 워크캠프를 실시하였다.

● 국제협력단(KOICA) 하반기 지원금

9월 30일 국제협력단에서 인도JTS 병원 건축 및 운영 지원금 1,500만원이 지원되었다. 10월 말 인도 현지에서는 병원건물이 2층까지 올라가고 건축 마무리 작업을 하고있으며, 2001년 1월 10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심포지엄 참여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4시까지 "21세기 국제협력과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협력연구소에서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다. JTS의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박강호님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하였다.

북한지원사업

● 라진·선봉 지역 지원

지난 9월 30일에는 분유 5톤과 설탕10톤을, 10월 21일에는 분유와 설탕 각각 15톤을 부산항에서 라진으로 보냈다.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각각 설탕과 분유를 15톤씩 보낼 계획이다. 11월 21일에는 도드람 양돈조합에서 기부한 쇼트닝 7.5톤과 돼지고기 통조림 1톤을 라진에 지원할 예정이다.

● 함경북도 고아원과 경로원 지원

지난 10월에 함경북도에 있는 고아원에 약품, 이불, 운동복, 신발, 양말과 밀가루 40여 톤, 세수 비누 50박스(5,000여 개)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빨래비누 5,400개가 11월 21일 부산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며 이것은 고아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 '사랑의 옷' 몽골에 무사히 도착

부산JTS가 모은 '사랑의 옷' 2차분 265박스가 지난 9월 21일 부산항을 떠나 울란바토르에 무사히 도착하여 세관검사와 행정절차를 무사히 마쳤다.



국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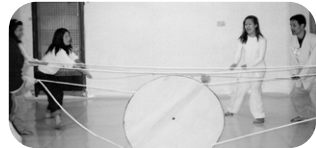
● 청소년 통일교육



하반기 청소년 통일교육이 10월 14일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구중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0월 28일에는 강북중학교의 통일시사반과 종교체험반 학생들이 정토회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았다. 11월에는 인천의 구산중학교와 인일여고에 통일교육을 나갈 예정이다.

● 시설 청소년 심성수련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동안 정토수련원에서 '한국여성의집'에 살고 있는 2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부적응 심성수련이 있었다.



● 실직자 심성수련

지난 9월 30일-10월4일, 10월4일-8일에 걸쳐 자유의 집 등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실직자 분들을 위한 심성수련이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실시되었다. 전체 32명의 참여자들이 코스모스가 만발한 수련원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끼면서 몸을 쉬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11월 8일-12일, 11월 22일-26일, 12월 6일-10일에도 실직자를 위한 수련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부

● 아셈2000 민간단체포럼에 JTS 참가

10월 18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포럼 빈곤개발 분과에 JTS가 참석했다. 이날 1시부터 시작된 분과 워크숍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지구촌 반곤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하여'라는 주제 하에 각국에서 모인 단체 대표들의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워크숍 참여

JTS 국제부에서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일본의 Karuizawa에 위치한 Sophia 대학의 세미나센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 워크숍은 UNHCR의 난민구호활동의 긴급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인터넷을 이용해 UNHCR의 활동가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회원광고란

서초동 우면산에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술의 전당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주위의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데도 온 우주가 다 필요하다' 던 어느 시인의 시귀가 떠오르더군요. 올해도 그렇게 온 우주와 더불어 나의 시간의 지나갔구나 생각하니 아주 오랜만에 찾아드는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님들이 계신 곳도 낙엽이 떨어지고 있겠지요? 그동안 몸 건강히 안녕하십니까? 매번 잊지 않고 회비 보내 주심으로 저희에게 작은 감동을 주시는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반송된 우편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주수가 변경되면 꼭 연락주세요. 이번에 제작한 청소년 통일교육 교재가 여러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포장해서 부치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아름다운 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회원관리부 최대원심 드림

연락바랍니다!!

8월, 9월 제이티에스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소를 몰라 소식지를 보내드리지 못해 양태깁습니다. 주위의 이웃이 닮아 보시고 연락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농협제이-조해숙(5만) 고경옥(1만) 유혜선(5천) 장영은(2만) 조혜진(5천) 조수연(2만)
한백교회(5만) 정희택(5천) 엽전가르미(6만) 서울대사범대 '두엄' (110만)

*국민제이-조재현(1만) 이성숙(10만) 개인회원팀(59만) 박승우(15만) 황회리(5천) 강현구(2만) 최은주(1만) 이명익(5만) 이제화(5만) 노희순(5천)

*조흥제이-임창호(1만) 정평화(3만) 오금실(1만) 최은주(1만) 박숙희(1만) 윤해영(1만)
신현정(5천) 최규은(5천) 김수영(1만)

*국민동포-유선(1만) 유경자(1만) 강민호(2만) 박혜경(1만) 안치욱(1만) 백성현(1만) 신명화(1만) 엄효순(1만)

*국민결연-우정숙(1만) 최승엽(5천) 이윤경(2만) 김상호(1만) 김혜순(1만) 김복남(1만)

*한빛제이-이종일(6만) 윤규희(2만) 윤선애(1만) 이지복(2만)

*외환제이-손정남(1만) 이연희(1만) 이귀숙(3만)

*하나제이-최미전(1만) 최인성(1만) 황현주(1만)

*국민은행-이윤경(2만) 이상열(6천) 김상호(1만) / *주택제이-유계조(5천) 김진철(1만)

*제일제이-임배아(6천) / *서울은행-한성희(2만) / *우체국-정상오(1만5천)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어린이 결연

- 211-02100-11 이순문,김동아
- 211-02102-11 진시연
- 211-02102-11 임영희
- 211-02103-11 윤혜영(강형규,강형주)
- 211-02104-11 황인건
- 211-02105-11 이명숙,구선용, 구자용
- 211-02106-11 권양희
- 211-02107-11 조중휘
- 211-02108-11 박은주
- 211-02109-11 정석원
- 211-02110-11 김희정
- 211-02111-11 신영자
- 211-02112-11 구분재
- 211-02113-11 안성순
- 211-02114-11 박경옥
- 211-02115-11 이순이
- 211-02116-11 오영미
- 211-02117-11 이복녀
- 211-02119-11 박선영
- 211-02120-11 정영배
- 211-02121-11 정종철
- 211-02122-11 김중희
- 211-02123-11 황재숙
- 211-02124-11 최순화
- 211-02125-11 박혜경
- 211-02126-11 최명자
- 211-02128-11 이혜숙
- 211-02129-11 박경민
- 211-02130-11 조경상
- 211-02131-11 이지은
- 211-02132-11 이명숙
- 211-02133-11 오세홍
- 211-02134-11 노경태
- 211-02135-11 이창우
- 211-02136-11 흥륜스님
- 211-02137-11 이옥순
- 211-02138-11 변국재
- 211-02139-11 김송희(송하)
- 211-02140-11 고희숙
- 211-02141-11 박현미

- 211-02142-11 이혜경
- 211-02143-11 이덕의
- 211-02144-11 이호순

인도결연

- 111-02445-14 김민석
- 111-02116-14 장지수
- 111-02447-14 이해일
- 111-02448-14 권양희
- 111-02449-14 한혜정
- 111-02450-14 김정혜
- 111-02451-14 김형섭,현희련

단체결연

- 212-00181-11 석형산,양애자
- 212-00183-11 정철우(태평양 치과의원)
- 212-00185-11 대전법당

특별후원금

- 광주 조대부고(북한)-350,940원
- 광주 조대여고(인도)-138,940원
- 일본 부락해방동맹 여성부-20,000¥
- 제173차 "깨달음의장" 참석자-210,000원
- 익령 (양로원지원)-756,000원
- 뉴욕JTS-5,000\$
- 뉴욕 이현순-3,000\$
- 현각스님-1,000\$
- 시카고 임대자-200\$
- 배근영 백일기념-50,000원
- 민들레의 노래-79,500원
- 강순화-100\$
- 허진욱-100,000원
- 이광범-1,000,000원

물품 후원

- 황영숙 : 빨래비누 5400개(100만원)
- 아가방 : 어린이 우주복 46벌, 바지 44벌
- 도드람양돈조합 : 식용 쇼트닝 7.5톤, 돼지고기 통조림 1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0. 31 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0.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0.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0.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0. 31 현재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올해 마지막 소식을 펴내면서 1년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이름들을 적어봅니다.
 편집 사정상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잊었던 '후원의 밤'에 대신 영
 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말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분이나 금액에 착오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북한결연>

171기째장참가자 19만5100 8월인도자원봉사자 5만 “온돌”(서울여대90학번모임) 56만 “한울”고지편
 집위원회(교기대) 2만 (유)럭키종합상재 90만 (주)오리엔스유니온 60만 (주)오성티 75만 15차례달음
 일동 27만5천 CHEZMDI 1만 PEACE21 18만4080 가인순 7만5천 강경모 9만 강명수강문수 18만1천 강
 민호 16만 강부경 3만 강상욱가족 58만 강석순 5만 강세원 4만 강수현 7만 강성묵강경목강경희 1
 만 강양미 4만 강영신 9만 강은주 8만 강인선 9만 강인숙 4만5천 강제봉 6만 강중봉 4만 강지선 5
 만 강지수 9만 강해정 2만 강현구 2만 강현구 12만 강현구 2만 강희 7만 강희숙 8만 개인회원들
 59만 거레문화답사연합 37만9천 경주교도소여직원회금생 8만 경희대한외대학생회 203만 계명대청
 년통일네트워크 21만 계정희 4만5천 고광자 14만 고덕주 4만5천 고리곤 4만5천 고미숙 27만 고미
 숙 5만 고미화 20만 고은영(연세월) 4만 고재숙 5만 고진환 13만 고철수 3만 고현숙 20만 공현 1만
 공대성 3만 공미선 3만5천 공보성 5만 공대용,공민정,최현순 14만 공형선 40만 광광봉 4만5천 광명
 옥 93만 광순영 9만 광정옥 5만 구경희 3만 구복순 1만 구지은 10만 군산대학교총여학생회 1만 권
 명숙 7만 권명우 43만 권성환,김광숙,권익수,권익진 3만 권소영 10만 권수영 80만 권양희 1만 권영
 인 5만 권영희 2만5천 권한걸 5만 권현양 4만 권혁건 15만 권현숙 9만 권혜진 6만 권호준 6만 권
 희정 5천 기림사(종강스님) 130만 김봉 2만 김강민 9만 김경남 4만 김경미 4만5천 김경희 8천 김
 경선 2만 김경숙 4만 김경아 14만 김경애 11만 김경자 3천 김경자 1만5천 김경희 2만 김경화 3만5
 천 김계희 4만5천 김공량한의원 10만6470 김관태 4만4천 김광숙 5만 김광원 20만 김광일 1만 김광
 호 29만 김광훈 30만 김교연 3만 김국화 2만5천 김귀숙 1만 김귀숙 6만 김귀숙 3만 김규탁 9만 김
 금숙 2만5천 김금순,이호준 50만 김금옥 2만 김기숙 8만 김기순 3만 김기욱 5만 김기욱 3만 김기
 진 9만 김기진,마경숙 100만 김기형,박복희 4만 김나미 16만 김나영 4만5천 김나희 10만 김도영 20
 만 김도영 160만 김도환 4만5천 김동균 100만 김동민 4만 김동수(정성신) 15만 김동아,이순문 2만
 김동원 1만 김동은 10만 김동윤,송승희 1만 김동일 18만 김동준(정운스님) 10만 김동희 4만 김막래
 16만 김명숙 4만 김명숙 1만 김명아 25만 김명자 3만 김명주 4만 김명희 20만 김명호 10만 김명홍
 6만 김명희 24만 김문달 4만 김미경 2만 김미경 2만5천 김미경 6만 김미경 40만 김미나 85만1200
 김미라 13만5천 김미란 4만5천 김미란 1만5천 김미숙(스님) 9만 김미영 5만 김미영 20만 김미자 8
 만 김미정 2만 김미혜 50만 김미혜 2만 김민경(부산) 10만 김민국 6만 김민균 1만 김민영 64만 김
 민옥 24만 김민정 3만 김병대 4만 김병양 18만 김병영 24만 김병조 350만 김병태 16만 김보일 8만
 김복기 2만 김복남 6만 김복련 9만 김복순 45만 김봉아 4만 김사리자 5만 김상태 2만 김상기 20만
 김상희 8만5천 김상훈 4만5천 김석용(연우) 16만 김석준,이해선 5만 김선미 2만5천 김선희 17만 김
 선희 5만 김성곤 9만 김성기 14만 김성도 9만 김성열 9만 김성일 2만 김성자 2만 김성철 4만 김성
 희 1만 김성희 10만 김성희 1만 김세원 7만5천 김세종 7만5천 김수영 10만 김수진 2만 김수현 3만
 5천 김숙자 13만 김순기 2만 김순덕 2만5천 김순덕 3만 김순숙 9만 김승훈 2만 김신희 8만 김안옥
 3만7920 김안희 2만5천 김애경,민병덕,민승기,민지혜 58만 김애숙 9만 김애식 2만 김애자 19만 김양
 기 24만 김양수 3만4천 김양순 26만 김양식 6만 김연숙 4만 김연화 6만 김영곤 18만 김영복 3만5
 천 김영성 1만 김영수 9만 김영숙 9만 김영숙 16만 김영옥 4만 김영옥 8만 김영옥 9만 김영지 3만
 김영호 90만 김예진 4만 김예형 2만 김오순 10만 김옥순 1만5천 김옥이 9만 김옥정 1만 김옥희
 455만 김원태 16만 김용수 3만5천 김용수 18만 김용숙 1만5천 김용완 45만 김우기 24만5천 김운자
 18만 김원각성 1000만 김원재 3만 김원택 1만 김월수 16만 김윤심 1만 김윤희 8만 김은경 10만 김



은숙 1만5천 김은숙,정수복 20만 김은영 4만 김은정 1만8천 김응전 6만 김이호 1만 김익록 9만 김인수 1만8750 김인숙 6만 김일형 4만 김재순 9만 김재영 9만 김재영 4만5천 김재완 1만 김재웅,김현정,김세희 6만 김재원 28만 김재은 26만 김재중 8만 김재호 1만 김정 1만 김정민 8만 김정선 8만 김정숙 45만 김정신 2만 김정애 2만 김정옥 3만 김정자 4만 김정자 54만 김정현 3만 김정화,김윤영 6만 김종민 5만 김종삼 3만 김종아,이순분 2만 김종아 2만 김종여(소희) 8만 김종인 6만 김종팔 4만 김종국 5천 김준호 10만 김지연 15만 김지연 9만 김지윤 50만 김지현(연세열) 3만 5천 김지형 2만 김진성 1만 김진숙(쿠시아) 4만 김진수 3만 김진수 2만 김진원 90만 김진철 9만 김진형 5만 김진희 17만 김찬동 2만 김창수 25만 김창호 1만 김철수 1만5천 김철홍 7만 김춘란 8만 김춘성 9만 김철성 5천 김태민 2만 김태완 9만 김태정 4만 김태진,허경미 8만 김태희 3만 김태희 27만 김택선 4만5천 김평희 3만 김학순 58만 김학철 8만 김해동 5천 김해순 2만 김현경(프란치스카) 5천 김현근 1만5천 김현영 1만5천 김현옥 5만 김현우 15만 김현자 45만 김현주 9만 김현주 4만 김현주 9만 김형석 1만 김형숙 3만 김형준 2만 김혜선 3만5천 김혜순 9만 김혜정 30만 김혜정 3만 김혜정 4만 김효영 18만 김홍미 9만 김화경 2만5천 김하숙 10만 김환홍,이정림 31만 김효천 10만 김효철 3만 김희섭 27만 김희수 35만 김희숙 13만 김희원 2만 김희자 22만 김희정 9천 김희정 2만 꿈틀 60만 나경옥 6만 나와우리 212만 남궁선 90만 남궁중 5천 남상호,남성우,박민신 1만 남선옥 4만5천 남삼희 5천 남재천 1만 남정숙 190만 노문용 10만 노선혜 8만 노승옥 6만 노윤래 노은정 3만 노태일 1만 노정주 1만 노태열 6만3780 노형국 3만5천 노혜남 7만 노희순 1만5천 녹색교통운동본부 96만5천 늘벗모임 30만 담교스님 13만 대불련부산지부 223만6220 대불련부산지부21세기통일로시 590만 대성고1-3 5만5천 대전정도 35만 대학노조 3만8600 대학노조통일위원회 15만5500 도상금 10만 도서출판학교재편집부 24만 도우희 7만 도정목스님 1만 동경현일일금 14만8448 동국대학교직원일동 579만5천 동국대학교직원(경주) 198만 동아대민주동문회 90만 동의대한의대8기 108만 럭키종합상재 20만 류성열 4만5천 류성옥 4만5천 류송희 4만5천 류재상 9만 류재홍 4만5천 마사회 1000만 마산JTS 20만 마산월령사 12만3500 마산정일사 20만 만해동문회 12만 만화행 20만 맑은샘교회 11만 묘화(김경희) 4만 문경신 3만5천 문공덕행 100만 문성연 5만 문성호 5천 문연옥 3만 문형서 2만 문희정 7만 미국제이티에스 259만4843 민성복 14만 민인홍 2만5천 박경진 18만 박경희 12만 박광용 5천 박광일 5천 박규홍,박정현 9만 박남기 1만 박노석 1만5천 박명송 2만 박명옥 1만 박명운 7만 박명의 2만 박명주 1만 박모은 4만 박문심 6만 박민화 13만5천 박병현 8만 박봉진 40만 박상준 1만 박상진 16만 박석규 45만 박선자 14만 박성미 7만7천 박성자 5만5천 박수연 4만5천 박수자 11만 박수형 1만 박숙희 10만 박순근 100만 박순천 5만 박순우 4만 박애란 3만 박영선 27만 박영이 1만5천 박영준 2만 박영현 38만 박영홍 9만 박영희 5만 박옥정 10만 박용순 11만5천 박윤기 9만 박원호 8천 박윤동 5만 박은자 3만 박은정 20만 박은주 6만 박은주 4만 박은혜 21만 박인례 4만8천 박인숙 18만 박재복 8만 박재윤 8만 박정덕 16만 박정선 3만 박정숙 9만4천 박정애 4만 박정연 18만 박정우 34만 박정호 3만 박정희 13만5천 박종만 13만5천 박중수 2만 박중숙 5천 박중열 1만 박중운 14만 박준자 27만 박준홍 3만 박중희 9만 박지자 5만 박진옥,공연표,공윤경,공유경 16만1천 박철홍 4만5천 박춘서 5만 박향선 12만 박현숙 9만 박현숙 2만 박현숙,박경미 8만 박형은 1만 박혜경 9만 배야희 10만 방승재(젊은이 의모임햇살) 30만 방정숙 3만 방정애 1만 방중선 10만 방형국 1만1천 배기운 5만 배미영 3만 배상호 8만 배성임 1만 배성호 9만 배운주 4만 백경말 5천 백성현 7만 백순례 2만 백승갑,성연준,성연호 15만 백승주 16만 백승호 4만 백시영 9만 백애란 3만 백연선 8만 백영자 5만 백영자 5만 백윤관 8만 백종민 5만 백종우 4만 백철규 9만 백해영 1만 변강혁 2만5천 변미영 3만 변성운 1만 변영미 10만 부산JTS 504만2790 부산공동모금 238만2410 부산대불련 260만 부산청년불자산악회 56만 북한어린이돕기 2만 사기순 7만 사범연수원 10만 상운산업 125만 상곡초등학교3-4반 10만 상암기회(주) 612만 상진스님 5만 서경숙 5만 서광석 5만 서교초등학교1-5 4만 서교초등학교3-1반 41만3천 서근학 4만 서기원 1만 서대석 9만 서동춘 1만 서동희 4만5천 서성갑 1만5천 서순례 2만 서영희 3만 서옥이 1만 서용표 10만9500 서울교대우리민족통일개살기운동 21만5470 서울대보건대학원환경95 36만 서울대사범대청년통일네트워크 18만5천 서울대역사교과87 48만 서울대청년통일네트워크 64만5천 서울대사범대동아리"두엄" 99만 서울대사범대북한통일포도밭기모임 64만5천 서울보종보협남대문지정 81만 서울우유 200만 서은숙 5만 서은숙 9만 서지영 1만5천 서춘성 3만 서혜정 7만 서홍렬 5천 석진숙 4만 선평인 5만 선재모임 3만 설훈의원 49만 설성봉 5만 설희사 27만3090 성



광스님 10만 성낙표 2만5천 성명호 3만 성미란 2만 성산초등2-9 11만5천 성산초등학교 75만 성산
 초등학교3-5 15만 성일조,김송사 60만 성태형 10만 성하성 69만 소구영 500만 소무재,유옥진 7만
 손갑숙 8만1천 손경숙 8만 손성란 3만 손애숙 4만 손옥순 6만 손정남 4만 손정숙 27만 손정현 7
 만 손종철 2만 손창기 1만 손정진 3만 송준 4만6천 송광사강원대중 231만5810 송동연 2만5천 송
 민화 16만 송복희 50만 송순자 2만 송영태 18만 송월주스님 100만 송정숙 11만 송중순 3만 송준
 영 24만 송하영,송동원 3만5천 수연 13만4400 시설관리공단 5만 신경은 1만 신기홍 1만 신동현 2
 만 신맹선 16만 신명화 8만 신상문 2만 신선녀 4만5천 신승희 4만5천 신양희 27만 신영숙 9만 신
 영자,서창규 5만 신영희 9만 신옥근 1만5천 신옥자 2만 신원규 1만5천 신원규,강신철,강민석 2만5
 천 신원철 3만 신유호 4만 신재동 4만 신재순 3만5천 신정순 2만 신청구 4만5천 신현정 4만5천
 신현숙 9만 신혜정 4만 심대근 3만 심명관 3만 심명화 1만 심상득(한마음회) 36만 심상오 15만
 심오거사님 5만 심영자 2만 아니룻다일요팀 108만 아원공방 25만 안경자 5만 안규환 2만 안금자
 8만 안산새능력교회청년부 10만 안성진,안재용 6만5천 안승규 4만 안응연 7만 안정연 4만5천 안
 종숙 18만 안치옥 11만 안혜영 2만 양경숙 5천 양광혁 1만 양동일 2만 양선미 3만 양수지 18만
 양승업 6만 양승일 9만 양영우 27만 양윤덕,오현수 160만 양윤희,김영환 31만 양은아 10만 양종은
 1만 양청길 81만 어린이대공원모금 43만 엄기자 4만 엄기조 7만 엄상숙 3만 엄성민,김순기 1만
 엄숙자,이지민,이영민,이호민 2만5천 엄영건 3만 엄옥례 2만 엄익인 3만 엄정무 10만 엄효소 7만
 엄효주 2만 엄여정 6만 여영화,양용주 9만 여희숙 4만5천 연대북동통돌는사람들 78만 연동희
 9만 연동행사모금 201만5380 연세외국어학원 20만 연세대경영학과지음 48만 연세대동아리(열음)
 77만5천 열린마음(인월양) 532만 업전가르미 42만 영남농시 21만 영남농업시화장 92만 영남대청
 년통일네트워크 3만 예진숙 1만 오진 7만 오금실 3만 오동환,오경환 18만 오봉렬 4만5천 오사카
 호교공동 282만1808 오상해 3만 오선희 9만5천 오성일 10만 오성파이넌스 25만 오순기 24만 오승
 민 16만 오영아 15만 오은주 8만 오익환 2만1천 오재림 3만 오지명 1만 오지혜 3만 오한신 8만
 오형자 6만 오현자 5만 옥규홍 9만 왕종윤 4만5천 우정,우연 4만 우영옥 9만 우장희 8만 우정숙
 9만 우정인 18만 우창석,우수경 1만 우현리 6만 원규연(연세일) 2만5천 원서영 9만 월드비전(정원
 종) 5만 유금 23만 유강하 2만 유경자 9만 유계조 1만5천 유광종 18만 유근옥 42만 유기웅 1만5
 천 유길자 8만 유명희(아네스) 4만5천 유미옥 45만 유상혁 9만 유선 9만 유성현 70만 유수용,유새
 미 12만 유순호 500만 유승열 1만 유안나 5천 유안나 4만5천 유운용 5천 유인자 6만 유재용 3만5
 천 유정식 3만 유정연 1만 유정완 3만 유지연(최재용) 130만 유진옥 10만 유특수,정수경,유건희 12
 만5천 유한택 9만 유혜선 4만5천 유혜영지유지 3만 유효진 21만 유희주,유경주 21만 윤규희 4만
 윤기희 27만 윤남용 2만 윤대호(오성) 4만5천 윤미경 5만 윤선애 8만 윤성원 4만5천 윤순희 9만
 윤연경 2만 윤영명 2만5천 윤영숙 4만5천 윤옥희 10만 윤정남,윤민호 8만 윤정렬 30만 윤정원 6
 만 윤철현,윤지는 500만 윤혜영 7만 윤혜경(강형규,강형주) 2만 울곡사 2만 이균 35만 이형 9만 이
 가영 20만 이건철 6만 이경선 20만 이경은 4만 이경준 6천 이경진 8만 이경현 5만 이경희 8만 이
 광범 100만 이귀숙 24만 이규태,이종은,이종진,김현숙 16만 이기승 10만 이기팔,이강성 8만 이기혜
 3만 이대섭 2만 이대훈,이화선 18만 이덕진 5만5천 이동범 5만 이동선 4만 이동윤 13만 이동철스
 님) 80만 이두원 142만 이명선 2만 이명선 7만 이명수 100만 이명숙 3만7천 이명식 9만 이명희 5
 만 이명희 8만 이묘임,조성운 25만 이미경 4만 이미순 10만 이미은 5만 이미혜 7만 이민선 6만
 이병만 7만 이병무 5만5천 이병민 4만 이부규 5천 이부규 4만 이상균 6만 이상기 8만 이상석 2만
 이상수 21만 이상열 12만 이상윤 1만 이상현 20만 이상호 21만 이선애 10만 이선희 5만 이성렬 5
 천 이성민 1만5천 이성수 9만 이성숙 10만 이성옥 14만 이성준 7만 이성현 2만 이송자 3만5천 이
 수경 2만 이수경 45만 이수경 9만 이수봉 9만 이수정 1만 이숙재 9만 이순미 4만5천 이순호 2만
 이양수,이마리아 30만 이연강 10만 이연규 10만 이연숙 14만 이연희 2만 이연희 3만5천 이영란 2
 만5천 이영옥 9만 이영옥 8만 이영자 7만 이영호,홍선경 1만 이영환 9만 이영희 20만 이영희 7만
 이옥수 20만 이윤순 4만5천 이윤자 18만 이윤재,박혜경 5만 이원경 7만 이원용 4만5천 이윤경 4
 만 이윤정 2만 이윤정 6만 이은경,이새찬 5만 이은순 18만 이은정,조금자 12만 이은종 8만 이은주
 8만 이인숙(부산) 5만 이인숙(부산) 8만 이재순 1만 이재종 2만 이정숙 218만 이정숙 10만 이정순
 1만 이정미 1만 이정주 9만 이정현 18만 이정환 1만 이재화 5만 이조자 4만5천 이종란 5만 이종
 순 1만5천 이종순 8만 이종열 7만 이종오 1만 이종일 12만 이종혁 9만 이주미 3만5천 이주영 10
 만 이주희 3만5천 이준구 15만 이준구 5만 이준호 27만 이지령 8만 이지명 1만 이지복 6만 이지



선,문성진 10만 이지식 9만 이지영 1만 이지현 4만 이진아 3만 이진아,이용성 8만 이창수 9만 이
 창영(정관스님) 70만 이창희 7만 이철규 4만 이철도 3만 이철도,김지수,김지은,김지은 22만5천 이
 청하,이지하,이동하 8만 이춘규 180만 이태관 1만 이필중 45만 이희중 1만 이하유 15만9710 이항
 규 3만 이항자 5천 이해일 2만 이현숙 9만 이현주 8만 이호정 3만5천 이희백 5만 이화순 1만 이
 화여자대학교하올타리팀 23만9천 이화는 9만 이희복 4만 이희안 3만 이희연 90만 이희완 6만 이
 희완 24만 익명 7만5천 익명(부산) 10만 인도1과 5만 인천구산중 3만3천 인천구산중학교 3만3천
 인현중학교 30만 인현중학교통일무지개 5만 일화스님 13만 임경희 8만 임궁자 13만5천 임규순 4
 만 임덕순 18만 임도형 3만 임우민 8만 임상민임상목 7만 임상방 9만 임상숙,김무관 9만 임영신
 9만 임익상 5만 임정복 45만 임정숙 5만 임창호 2만 임현주 30만 임형신 9만 임희영 11만 임희
 광 6만 임효정 20만 임희영 5만5천 임정교성회 10만3066 자비신행회(대원사) 125만 자비회 31만
 자원스님 10만 작은이,대불려,부산정도회 126만1150 작은이대불려 102만5190 작은이들을생각하는
 사람들 3291만3536 장원 4만5천 장계만희 8만 장광성 4만5천 장성호 2만 장성호 18만 장소환 40
 만 장숙경 5만 장영은 18만 장영희 3만 장우정,장우혁 3만 장원수 4만5천 장윤민 2만 장윤민,장
 태근 14만 장은미 17만 장일선 3만 장자공부모임 63만 장재욱 5만 장재호 9만 장재훈 2만 장창
 무 2만 장창호 7만 장창호 4만5천 장택균 1만 장택현 9만 장필래 2만5천 장하주 6만 장하주 1만
 장호철 1만 재일한국학생동맹 78만1100 재일한국청년연합 749만3144 전건재 4천 전교조초동위원
 회 579만5천 전규하 4만 전기환 2만5천 전단희 5만 전만수 9만 전문자 1만5천 전병옥 1만 전병
 화 4만 전석표 2만 전세진 4만5천 전숙경 2만 전순자 4만 전승철 4만 전외자 10만 전은향 5천
 전인현 1만 전현자 4만 정경주,곽영술 80만 정광주 1만 정광화 10만 정구현 30만 정구덕(황영숙)
 200만 정규동 1만5천 정규수 3만 정다운 1만2천 정명화 3만 정명희 9만 정명희 8만 정미순 2만
 7500 정미순 3만 정병모 81만 정병수 21만 정보금 3만 정복영 50만 정상오 3만 정상일 8만5천
 정서원 1만 정성수 9만 정성훈 8만 정수정 3만 정순덕 24만 정수영 1만5천 정승환,이동은 3만
 정시원(연세월) 1만 정애경 9만 정연우 10만 정영부 23만 정영순 1만 정영자 10만 정옥금 3만 정
 옥순 3만1천 정옥자 2만 정일중 6만 정유진 80만 정윤길 45만 정은호 5만 정의정 60만 정일국
 18만 정일용 5만 정임석 10만 정정숙 1만3천 정종화 8만 정지남 2만5천 정지숙 2만5천 정지철 3
 만5천 정지혜 2만5천 정지혜 5천 정태호 2만 정태호 2만 정택현 1만 정도대학생회 41만 정도합
 창단 30만 정평화 21만 정한수 1만 정해일 1만 정현스님 5만 정현숙 13만 정현철 4만 정혜비 1
 만 정혜수 4만5천 정혜원 1만 정혜원 6만 정혜중 4만5천 정혜현 1만 정호윤 3만5천 정흥택 2만6
 천 정화선 4만5천 정희선 1만5천 정희복 5천 제갈성,김순만 1만 경영아 4만5천 경호조 5천 조규
 자 3만 조규복 4만5천 조규자 8만 조근희 5만5천 조길래 1만 조동희 6만 조득옥 5천 조영숙 9만
 조미경 3만 조병래 4만 조병무,조병주 8만 조성렬 10만 조수연 2만 조수현 4만 조순형 10만 조
 영근 5만 조영문 5천 조영보 8만 조옥분 8만 조원주,이진수 5천 조은성 2만5천 조장순 6만 조재
 열 9만 조재형 5만 조정옥 9만 조종남,이덕중,최순자 23만5천 조진규 7만 조진숙 5만 조진현 3만
 조철현 4만 조태복 3만5천 조해숙 10만 조현순 3만5천 조혜진 1만5천 조홍식 5천 주)오리엔 10
 만 주덕자 1만5천 주동엽 23만 주영호 4만5천 죽향 382만5천 중계초등학교6-5 8만1220 지금련 5
 만 지명자 13만5천 지성하의원 10만 지영민 5천 지원중 9만 지중용,홍현주 9만 지현스님 2만5천
 지현정 1만 진민선 5천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112만 진영미 1만 진영희 2만5천 진철스님 30
 만 진혜연 18만 차규용 1만 차길호 3만 차덕수 2만 차성순 5만 차주현 6만 채경주 5만 채창원 6
 만 천세훈천세이 2만 청년정보문화센터 499만9849 청년정도회 376만5천 청소년 2만 청주정도지
 회 15만 최경숙 1만 최경숙 25만 최경순 105만 최광규,김길자 8만 최광수 9만 최규은 4만5천 최
 기영 7만5천 최대원심 7만1천 최명호 2만 최미진 8만 최미진 1만 최병덕 1만 최봉철 5만 최상기
 18만 최성도 1만 최수자 7만 최순아 1만 최순이 6만 최순희 9만 최승계,최윤정,최유석 10만 최승
 연 3만 최승엽 4만5천 최현희 13만5천 최영심 4만 최영조 2만 최영희 4만 최영희 14만 최요신,백
 해영,최성현 7만 최용선 4만 최유희 4만5천 최윤익 33만 최은영(연세월) 1만 최은옥 2천 최은주
 3만 최은주 6만 최은주 4만5천 최인선 40만 최인순 40만 최인심 3만 최정영 2만 최종근 2만 최
 진영 1만5천 최춘순 27만 최춘우 2만5천 최택 26만 최해란 1만 최해란 2만 최혜선 2만 최혜자
 (김광원) 18만 최희규 15만 주민지 8만 충북대동아리연합회 15만 카톨릭청년연대 22만3720 통일
 미래를잇는청년들 782만 포럼2001 227만 표총사 15만 프리덴셜생명보 30만 허상수 16만 허준철
 4만5천 하지연 5천 한갑수 10만 한국불교통신대학 10만 한국수자원공사예산부 22만 한금희 2만5



천 한기동 24만 한마음선원 173만 한명기 3만 한명만,신미 1만 한미경 10만 한백교회 15만 한사진 4만5천 한상규 14만 한상수 2만 한상숙 9만 한선의 11만 한성희 2만 한승범한정범 9만 한영옥 1만 한정각심 6만 한정구 3만 한주신,한희영,한희만 25만 한청년 198만5090 함께하는맑은마음 4만 함재혁 8만 향생(서강대) 20만 허갑순 5만 허해령우리동네 90만 허정도 18만 현대아산 3000만 현승근 9만 현정 50만 혜륜 15만 혜옥스님 2만 혜원스님 60만 혜전을사랑하는동문들 103만5천 혜학스님 10만 흥기브리엘 12만 흥기인 3만5천 흥병희 4만5천 흥순우 4만5천 흥영수 11만 흥영준 9만 흥은미 5만 황경석 3만 황기성 9만 황금중 6만 황미경,김상훈 15만 황병주 4만 황성희 20만 황순국 8만 황순덕 2만 황순주 1만 황승우,임숙이 10만 황영숙 3만 황영희 6만 황인근 5천 황인수 1만 황인수,홍정순 9만 황재룡 1만 황재수 55만 황정숙 9만 황종남 4만 황준호 5천 황준화 4만 황현주 9만 황희리 7만5천

<인도후원>

각철스님 4만5천 각해보살님 100만 강한,강은혜 9만 강경백 3만5천 강경순 4만 강명숙 3만5천 강모덕화 1만 김미자 5만 강민승 1만 강성구 4만5천 강수빈 2만4천 강순남 3만5천 강영신 27만 강원정 10만 강유태 3만5천 강인구 4만5천 강재연 8만 강재철 9만 강주영,이순복 18만 고근 1만 고경옥 9만 고미영 4만 고민재 9만 고승호 9만 고티속 7만 구자성 12만 구태완 9만 권기섭 2만 권덕순 8만 권도숙 20만 권도한 2만 권명숙 10만 권미화 9만 권선님 1만1천 권승숙 8만 권영선 9만 권익현 9만 권정원,김용석 9만 권현숙 11만 귀산스님 5만 금천선원귀중 90만 기세동 1만 김경연 5만 김경화 1만 김광웅 1만 김광호 4만5천 김광훈,김수경 24만 김금숙 9만 김금자 4만 김기동,박현숙 9만5천 김기숙 28만3770 김기용,김정애 3만5천 김기현 20만 김길자 2만7천 김나영 5천 김덕수 1만 김도희 1만5천 김동수 7만 김동영,김민영 4만5천 김동준(정운스님) 9만 김명덕 4만 김명렬 18만 김명숙 2만 김명옥 9만 김명혜 27만 김묘길 18만 김우량화 5만 김미숙 4천 김미아 3만5천 김미자 8만 김민석 4만5670 김민정 4만5천 김민지 9만 김봉희 9만 김상수 4만5천 김상철 27만 김상호 9만 김서정 6천 김석례 1만 김석희 9만 김선옥 3만 김설연,박종규,박형규 7만 김성준 1만5천 김성철 2만 김성호 23만 김수경 4만 김수복 27만 김수현 9만 김순남 3만 김순자 2만5천 김순자 5만 김순자 5천 김순희 4만5천 김실상화(김동운) 90만 김애경,민병덕,민승기,민지혜 32만 김애리 8만 김양수 4만5천 김양순 9만 김양순 360만 김연숙 27만 김영란 6만 김영순 4만 김영은 6만 김영자 18만 김영자 8만 김영혜 1만5천 김옥분 4만5천 김완수,서성필,김학준,김학선 48만 김용구 9만 김용숙 4만5천 김용주 45만 김용호 7만 김윤배,이근석,이보경 20만 김용미 2만7천 김원배 3천 김유리 6천 김윤숙,안우환 18만 김윤지,김형준 3만 김윤희 1만 김은애,현민재 10만 김은영 12만 김용서,김영희 10만 김의숙 7만5천 김인하 2만 김인현(도안사) 37만7850 김재렬 5천 김재식 3만 김재윤 5만 김정미 9만 김정민,김상훈,김종호 95만 김정숙 1만 김정숙,곽근 6만 김정옥 8만3천 김정희 10만 김종근 10만 김종오 9만 김지택,김지환 1만 김지훈,김광호 10만 김진원 15만 김차중 1만4천 김찬옥 10만 김창연 10만 김창영 33만 김150 김태옥 5만 김태진 9만 김태홍 5천 김태희 27만 김필성 9만 김혜오 5만5천 김향순 3만5천 김희도 2만3천 김현주 9만 김형수 1만 김혜수 4만 김혜정 11만 김희자 4만 김희진,김팔술 23만 김희수 3만5천 김희정 4만5천 김희태,김나영 8만 나정인 1만2천 나희옥 2만1천 남경봉 10만 남석모 3만 남재천 6만 남화정 8만 노동식 5천 노정우 17만5천 노청자 1만 뉴욕JTS 993만1545 도상금 18만 로순덕 4만 류만재 4만5천 류영호 4만 류재현 4만5천 류해권 15만 마경숙 218만 마기영 25만 마산정토(유애경) 60만 목경일 4만5천 문보경 8만 문성원,문재호 4만 문영조 5천 문재옥 9만 미국보살님들 186만9450 박경애 4천 박광식 20만 박광혜 8만 박규산 1만5천 박기동,박도연 8만 박기선(해광) 4만5천 박기추 18만 박대식 9만 박대희 1만 박영기 14만 박문규김광혜 7만 박문수 4만5천 박미숙 7만 박미은 45만 박병훈,박나리 8만 박복송 1만9천 박부자 2천 박상용 3만 박성기 8만 박성희 20만 박순천 9만 박애란 4만 박양진 18만 박영수 1만 박옥임 3만 박용민 33만 박은숙 15만 박은영 1만5천 박은향 5천 박을순 5만 박이용 1만6천 박인혜 4만5천 박재권 15만 박정규외4인 50만 박정례 8만 박정민 1만 박정숙 8천 박정순 6만 박정윤 1만 박정현 5천 박정현 10만 박정흠 6만 박종구 2만7천 박준석,박진석 3만 박진현 3만 박정재 9만 박태희 8천 박현숙 26만 박현숙 6만5천 박현주스님 7만 박희숙 9만 박희순 5만 배경숙 8만5천 배영미,이정진,이지현 40만 배준석,배정윤 1만5천 배현지 8천 백기순 1만 백기순 11만 백우현(선재) 9만 백성연 1만 백숙진 4만 법연스님 10만 법장스님 12만 변



은아 4만5천 변형석,변강혁 8만 복익성 8만 봉금례 18만 사명순 4만 서기수,서나연 41만 서성무 9만 서영숙 2만 서정모,서준모 7만 서필순 1만 서혜영,고철수 36만 석미경 4만5천 석형산,양애자 17만 성각스님 5만 성낙예 2만 성낙진 18만 성소영 1만 성은주 8만 성춘복 8만 소광섭 20만 소병관 9만 소홍남 2만7천 손경연 45만 손경희 7만 손순호 9만 손양숙,전수연 3만5천 손영목 18만 손임순 6만 송복희 80만 송영호 6만 송외수 8만 송정호 2만 송정희 9만 송주현 100만 송차섭 1만 시카고불교실업 50만 시계월 1만5천 신남식 8만 신동윤 2만 신동율 7만 신민정 2만 신병식 4만 신병옥 1만 신세균 23만 신연숙,신영교,신인순 12만 신연옥,양인철 3만 신영미 6만 신영숙 1만 신임숙 1만 신희교,신희주,신희진 6만 신희순 11만 심성용,심정화 9만 안경자 4만 안목이 1만 안성지희(쌀) 44만 안순희,윤효남 27만 안영덕 9만 안옥승 3만5천 안은주 9만 안정숙 20만 안창윤 4만 5천 안현정 1만 안효신,정승연 7만 양금서 8만 양석인,이상권 4만 양석희 3만 양우진 10만 양윤덕 20만 양창순 13만 양태희 45만 양현애 18만 양현이 2만 양희찬 50만 엄기대,김소기,엄성민 8만 엄익인 2만 엄철용 4만5천 여옥수 4만5천 오기상 7천 오동규 7만 오성룡 70만 오은선 9만 오은우,오환일 1만5천 오점순 7만 오정명 6천 오환순 1만 옥경수 7만 우정,우연 11만5천 우경미 3만2500 우계명 55만 우복례(담요) 305만 우영미,이창석 14만 원남이 2만 원미영 3만5천 원종스님 5만 원치환 26만 유길자 10만 유병옥,김정옥 28만 유상열 5만4천 유상완 9만 유성현 15만 유정숙 100만 유태희 8만 유필여 2만 유혜영 2만 유현주 5천 유효열 30만 윤교원 1만8천 윤기희 8만 윤남용 6만 윤남용 8만 윤보은 2만 윤설희 9만 윤성희 9만 윤영선 9만 윤정남,윤민호 10만 윤진옥 2만 3400 윤채근 6만 윤해숙 7만 윤희연,윤희진 5만 은현미 1만4440 음승환,음주완 18만 이선 9만 이강자,조진용,조진현,조경해 12만 이강학,신성에 20만 이관수 16만 이경준 2만 이경화 5만 이경희 5만 이경희 8만 이광숙 8만 이규식 10만 이규홍,이혜진 7만 이근관 1만 이근식 4만 이금자 7만 이기호 2천 이길용 3만 이남철 4만 이덕진 4만 이도홍 6천 이말숙 9만 이명선 11만 이명숙 10만 이미경 1만 이복남 30만 이상련 3만 이상동 24만 이상락행 10만 이상식 8만 이상옥 8만 이상태 16만 이상협,이동협 6만 이상훈 11만 이석순 7만 이석철 9만 이선자 4만 이송자,김화진 14만 이수경 18만 이수진 4만 이숙자 1만 이숙자 4만 이숙희 4만5천 이순근,이완수 8만 이순길 8만 이순연 10만 이순옥 5천 이순우 2만5천 이순주,김자현 230만 이순희 5만5천 이순희 7만 이승숙 12만 이승재 5만 이승호 20만 이신숙 4만 이신숙 4만 이안홍 27만 이연희 5만 이영숙 8만 이영숙 8만 이영옥 20만 이영희 9만 이영희 3만5천 이오예(담요) 310만 이옥남 4만 이웅순(법혜심) 9만 이웅인 4천 이옥태 4만 이웅길 1만5천 이윤경 22만 이은숙 18만 이은정 4만 이인경 9만 이인규 40만 이일형,이재민,윤경화 6만 이임선 1만 이정훈 7만 이재선 1만 이재은 1만5천 이정순 2만 이종규 4만5천 이종두 4만 이종성 9만 이종애,관성우 9만 이종완 4만5천 이종주,이주희 8만 이주연 2천 이주엽 9만 이주영 8만 이주희 5천 이준목 4만5천 이지현 5천 이지현 4만 이진옥,이승은 4만 이창윤 8만 이청도 24만 이초아 5만5천 이춘경 110만 이춘남 9만 이춘복 3만 이태순 3만 이한중,이석춘 1만 이한중,이석춘 9만 이혁재 40만 이현우 4만 이현호 4만5천 이형주 9만 이혜성 6만 이효순 9만 이효정 24만 인성훈,인정훈 8만 임배아 12만 임수진 9만 임순옥 33만4940 임영필 9만 임월선 2만2720 임익삼 9만 임재근 8만 임정복 45만 임창실 6만 임춘자 5만 임혜진 6만 임희광 6만 장기울 1만 장덕희 9만 장석채 15만 장선희 1만7천 장성호 27만 장순자 2만5천 장시우 5만 장옥희 2만 장원옥 3만5천 장인성 3만 장일우,남순우 4만5천 장재명 16만 장종희 1만4천 장호철 8만 전서연 2천 전영미 2만5천 전정란 27만 전정숙 18만 전형수,박정임,전병기 8만 정영 4만5천 정경빈 4천 정경주 30만 정광희,권진숙 18만 정구락 4만 정구순 4만 정귀조 5만 정규수 24만 정길춘 4만 정남식 75만 정돈영 7만 정득점 1만5천 정명자 8만 정무권 6만 정성호 1만 정수정 3만 정순임 4만5천 정양자 8만 정영식 6만 정영옥 8만 정용옥 9만 정우균 1만 정유진 10만 정윤영 9만 정은숙 370만 정의정 18만 정인경 9만 정정국(명조스님) 20만 정정자 15만 정주연 9만 정찬옥 12만 정창덕 42만 정천희 7만 정춘복,정태영 1만 정태호 9만 정태숙 8만 정혜림 1만 정혜원 4만5천 정혜중 4만5천 정환호 10만 정희경 9만 조경식 4만5천 조미경 8만 조민선 2만 조민정,조화정 1만 조선경 17만 조선자 4만 조성필 7만 조용윤,조윤희 4만 조유순 2만 조윤희 6만 조인순 22만5천 조정규 16만 조정숙 180만 조정숙 7만5천 조정희 3만 조종남 27만 조지종 9만 조지현 45만 조한중 44만 조혜람 9만 조혜정 1만 조희재 5만5천 주복식 9만 주숙명 5만 주지하 3만 지광배,지성배 2만 지미경 9만 지민규 6만 지숙희,김금분 4만5천 진영희 9만 진일스님 1만 진철스님 226만6천 진태관 5만 차경렬 24만 차정희 24만 채관석 4만5천 채영미 3만 채혜현 31만 천정임 4만5천



최경락 128만8천 최경숙 12만 최경순 100만 최경자 1052만5740 최광일 5천 최귀옥 3만 최금숙 4만5천 최기주 8만 최미연 9만 최병연(최진실) 3만 최복인 4만 최봉근 12만 최상순 3만 최성할 4만5천 최승인 12만 최영이,최원교 8만 최영희 3만5천 최용재 18만 최우택,최정경 316만 최윤희 3만 최윤정 2만 최윤정 4만 최일옥 4만5천 최정목 2만 최정섭 9만 최종필 1만4천 최종현 1만5천 최준희 1만 최진아 8만 최총락 18만 최혜선 18만 최현태 15만 프랭코테데스코 3만 필추인 15만 허경희 5만 허순자,정해원 5만 허정우 14만 한남정,조기준,조현민,조희경 4만5천 한동대 8만 한미자 1만 한선미 2만5천 한성자 8만 한승수 1만7천 한승협,한영태 11만5천 한시열 4만 한연호 8만 한영실(뉴저지) 11만 3180 한정혜 2만 한주식 7만 한초자 14만 한혜숙 8만 한혜자 8만 함용마 180만 허금숙 5만5천 허미혜 9만 허상영 1만5천 현승열,김니경,현연주,현정 19만 현장스님 50만 현진스님 9만 현진스님(신소영) 4만5천 혜선스님 3만 홍기자 5만5천 홍미자 18만 홍영진 2만 황금영 11만 황병옥 3만 황수연 9만 황순례 18만 황승오,임숙이 8만 황영진(돈오스님) 11만 황옥주,이지은,이용표 2만 황인숙 4만5천 황정자 10만 황현주 18만 황혜경 19만

<후원의 밤>

가명옥 5만 가שמ 10만 강우정(불교바로세우기) 5만 강원룡 3만 견훤 5만 경블러 10만 고정희 5만 광영술 5만 구동희 4만 구본태 10만 구정숙,김태기 10만 우종남 5만 원희룡 5만 유애경 5만 유영신 5만 유재현(세민재단) 5만 권정태 5만 권형기 1만 김관희 5만 김대선 10만 김덕룡 30만 김도후 20만 김동균 20만 어윤주 10만 어윤홍 10만 여래화 2만 연기영 10만 염진수 5만 오정란 2만 오학순 5만 우리는선우 5만 우리민족서로돕기 20만 국제성 5만 국제옥수수재단 5만 권상례 5만 권영미 10만 유지문 5만 유진옥 15만 윤원 2만 윤복경(대자연보전환경협회) 5만 윤명숙 6만 윤민혜 5만 윤성숙 5만 윤영주 5만 윤정구 5만 이강민(진각복지회) 5만 이경숙외1인 10만 이경애 5만 이경옥,강동우,강지석 10만 이명륜(우리집명상센터) 5만 이기수 1만 이상로 10만 이상순 5만 이상옥 5만 이상진 5만 이성원(원불교) 10만 이순규 5만 이영주 5만 이용운 5만 이웃웃돕는사람들 10만 이웃사랑회 10만 이용신 10만 이정자 5만 이창영 5만 김은숙 5만 윤정열 10만 김미정 5만 김미조 10만 김미희,윤희경 10만 김민경 5만 김상순 5만 김상호 3만 신석용 5만 김선향 5만 김성곤 5만 김성오 5만 김숙진 5만 김순기 5만 김승희 1만 김신교,인순형,주옥화 3만 김연숙 5만 김영란 5만 김영준 50만 김영희 5만 김영희 5만 김우준 10만 김원일화 100만 김원금 3만 김윤수 10만 이학중,김민경 10만 이혜영,남선우 10만 익명 1만 익명 3만 익명 10만 익명 10만 익명 5만 임무규 5만 임정희 5만 임종성 5만 임향조 5만 자비의전화 5만 자재성 5만 정국(콤포스타) 5만 정귀자 5만 정규호 5만 정덕스님 10만 정성온(현대불교) 3만 정성훈 5만 정윤필(성산초교교장)5만 정태식 5만 정도합창단 30만 정혜정 5만 정화진 5만 조영재 5만 조영재 10만 주경스님 5만 지오스님(서원사) 10만 진성명상아카데미 10만 김익구 5만 김인순 5만 김지경(맑고향기롭게) 5만 김재일(보리모니터) 5만 김재희 5만 김정례 5만 김중주 5만 김진열 3만 김진환 5만 김충조 10만 김해영 5만 김형섭 5만 김혜순,김윤희 10만 나눔문화연구소 10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5만 남해화학 500만 노금실 5만 노세호 1만 노순옥(견지불교사) 5만 노희순 5만 다일공동체 10만 대전점도 35만 대한제당 10만 도문스님,환희스님 100만 도현스님 10만 명심행 5만 무주상 100만 문근정 30만 문두성 5만 문순홍 5만 미셀미틀렛 5만 민명희 5만 진우스님 10만 차승섭 5만 채선미 5만 청년정도 15만 청안사주지스님 50만 최문영 5만 최미선 5만 최민희,임길자,전미애 50만 최승희 5만 최승천 3만 최영자,관선자,조정순 3만 최완옥 10만 최인선 10만 최재용 100만 최정심 5만 박현숙 5만 박희희 5만 방정은 5만 배광식 5만 배기선 5만 배정희 5만 배향옥,한은숙 10만 배현숙,강주혁 5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5만 상륜스님(승가사) 10만 서영훈 50만 서울우유 200만 서현순 5만 민영기(국제협력단총재) 30만 박경미 5만 박광애 5만 박광서 10만 박남숙 5만 박덕환 5만 박동만 100만 박상필 5만 박상희 10만 박소영 5만 박영희 5만 박완수(생명나눔실천회) 5만 박은정 5만 박인순 2만 박정자 5만 박정호 2만 박청수(원불교) 30만 박청숙 5만 최풍남 10만 최향순 3만 최혜옥 5만 큐베트 5만 통일부인도1과 5만 표창사 5만 한국국제봉사기구 5만 한근수 5만 한민족복지재단 5만 한옥희 10만 한재광(지구촌나눔운동) 5만 선다양 365만 석각스님 5만 성수경 2만 손봉기(PLA) 10만 송영희 5만 송윤옥 5만 신구덕 5만 신성애,김영희,원용화 15만 신원선 5만 안희진 3만 양민아 5만 한초자 5만 향원성 5만 현대아산 3000만 해륜스님 15만 황인후 5만 황화숙 3만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핵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부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년,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참에 주십시오!

